



「역동의 한국 로드맵」

실천이 열쇠다



金仲秀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12월 10일 14:00 ~ 15:00 / 12월 17일 14:00 ~ 15:00 / 12월 24일 14:00 ~ 15:00 / 1월 7일 14:00 ~ 15:00 / 1월 14일 14:00 ~ 15:00 / 1월 21일 14:00 ~ 15:00 / 1월 28일 14:00 ~ 15:00 / 2월 4일 14:00 ~ 15:00 / 2월 11일 14:00 ~ 15:00 / 2월 18일 14:00 ~ 15:00 / 2월 25일 14:00 ~ 15:00 / 3월 4일 14:00 ~ 15:00 / 3월 11일 14:00 ~ 15:00 / 3월 18일 14:00 ~ 15:00 / 3월 25일 14:00 ~ 15:00 / 4월 1일 14:00 ~ 15:00 / 4월 8일 14:00 ~ 15:00 / 4월 15일 14:00 ~ 15:00 / 4월 22일 14:00 ~ 15:00 / 4월 29일 14:00 ~ 15:00 / 5월 6일 14:00 ~ 15:00 / 5월 13일 14:00 ~ 15:00 / 5월 20일 14:00 ~ 15:00 / 5월 27일 14:00 ~ 15:00 / 6월 3일 14:00 ~ 15:00 / 6월 10일 14:00 ~ 15:00 / 6월 17일 14:00 ~ 15:00 / 6월 24일 14:00 ~ 15:00 / 7월 1일 14:00 ~ 15:00 / 7월 8일 14:00 ~ 15:00 / 7월 15일 14:00 ~ 15:00 / 7월 22일 14:00 ~ 15:00 / 7월 29일 14:00 ~ 15:00 / 8월 5일 14:00 ~ 15:00 / 8월 12일 14:00 ~ 15:00 / 8월 19일 14:00 ~ 15:00 / 8월 26일 14:00 ~ 15:00 / 9월 2일 14:00 ~ 15:00 / 9월 9일 14:00 ~ 15:00 / 9월 16일 14:00 ~ 15:00 / 9월 23일 14:00 ~ 15:00 / 9월 30일 14:00 ~ 15:00 / 10월 7일 14:00 ~ 15:00 / 10월 14일 14:00 ~ 15:00 / 10월 21일 14:00 ~ 15:00 / 10월 28일 14:00 ~ 15:00 / 11월 4일 14:00 ~ 15:00 / 11월 11일 14:00 ~ 15:00 / 11월 18일 14:00 ~ 15:00 / 11월 25일 14:00 ~ 15:00 / 12월 2일 14:00 ~ 15:00 / 12월 9일 14:00 ~ 15:00 / 12월 16일 14:00 ~ 15:00 / 12월 23일 14:00 ~ 15:00 / 12월 30일 14:00 ~ 15:00

지금 우리 경제는 한 마디로 내수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상황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수출호황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5%대를 기록하고 있으나, 국민의 경제활동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소비와 투자가 장기간 침체되어 국민의 체감경기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어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선행지표도 급변 중반이후 하락하고 있어 그동안 우리경제를 지탱해 왔던 수출급등세가 점차 완만해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대표적 경기전망기관인 Global Insight는 하반기 세계경제성장률이 상반기보다 0.5%p 정도 하락한 3.7% 수준에 머

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우리 수출에 대해 2분기 정도 선행하고 있는 OECD 경기선행지수의 증가율도 지난 3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1년여 동안 5%대 성장의 버팀목 구실을 해왔던 IT부문의 활력도 점차 소진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KDI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상반기의 5%대에서 하반기에는 4%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장률은 전년동기와 비교한 성장률이며, 실제 해당 분기의 경제활동 수준을 반영하는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연율로 환산한 수치는 오히려 상반기의 2%대 후반에서 하반기에는 4~5%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전망이 최근의 유가급등 및 세계경기 둔화에 의해 상당 부분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반기에 내수침체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내년의 경제흐름도 금년 하반기의 패턴이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KDI는 예상하고 있다.

경제주체에 자신감을 심어주라

하반기의 경제활력이 상반기에 비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실사지수와 소비자평가지수에 나타난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매우 위축되어 있다.

우리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오늘의 생활이 어렵다는 것 뿐만 아니라, 내일의 생활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쉽지 않다는 느낌에 기인할 것이다.

내수침체에 따라 기존 근로자는 퇴직의 위협을 받고, 신규 노동력은 취업기회를 갖지 못하고, 기업은 글로벌 추세의 불확실성 속에 적절한 투자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을 예를 들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장기금리후이가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금리는 경제활동의 내생변수이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한 경제의 역동성을

반영하는 변수하는 점은 분명하다.

경제 활력이 높았던 우리 경제의 금리는 미국의 금리수준을 항상 상회하여 왔으며, 경제활력을 상실하였던 일본의 금리는 미국 수준을 크게 하회하여 왔다.

그런데 우리의 장기금리가 미국 수준으로 하락했다. 금리 하락이 의미하는 것은 자금의 공급에 비해 수요가 위축되어 있다는 것

이며, 기업과 가계가 활용할 경제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임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단기적이고 순환적인 요인과 함께,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단기적·순환적인 요인으로는 과거

최근에는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어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선행지표도 금년 중반이후 하락하고 있어 그동안 우리경제를 지탱해 왔던 수출급등세가 점차 완만해질 가능성도 있다.

의 과잉투자와 과잉소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

그 대표적 예로서 외환위기 이전의 대기업 과잉투자, 1999~2000년 기간의 벤처버블, 2001~2002년 기간의 신용카드 버블, 2002~2003년의 주택시장 과열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 중 대기업의 과잉투자 조정은 이미 완료되었다고 보이며, 실제 많은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킨 후, 작년부터 투자를 재개하고 있어 현재의 투자 위축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는 어렵다.

벤처버블의 조정과정 또한 상당 부분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의 전반적인 투자침체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파악되지는 않고 있다.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 붐의 붕괴 및 이후의 신용불량자 문제는 작년에 발생한 소비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점차 그 여파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은 틀림없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작년까지의 주택시장 과열에 대한 조정은 금년에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도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심화되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불안은 이와 같은 단기적·순환적 요인들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유지 혹은 성장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경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확신을 갖기 어려울 때, 오늘의 투자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마찬가지로 가계의 입장에서도 미래의 소

득흐름에 대한 불안은 오늘의 소비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면 장기 계약을 맺지 못하게 된다.

작년 말 이후 일부 기업들이 고용을 확대 하였으나 그 대부분이 part-timer라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기업들이 당장의 수요확대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근로자들과의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 계약을 꺼려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 현상에 따른 생산가능인력의 상대적 축소 및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감소 등이 생산요소 투입량을 빠르게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OECD국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강력한 고용보호법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는 것도 기업이 고용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금년 2/4분기중 총 취업자는 전년동기에 비해 40여만명이나 증가

하였으나, 주36시간 이상 취업자는 오히려 15만명이나 감소하였다.

주36시간미만 취업자가 55만명이나 증가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주체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중장기적 경제 활력 저하의 근거는 무엇인가?

우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어느 정도는 경제발전단계에 따른 일반적이고도

